컴팩트사 - 코밍 안한 링 방적 코머사

링 정방기에서는 면사의 잔털을 말끔히 줄이기 위하여 코밍(combing)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로 인해 공정이 하나 늘고, 그만큼 소요 시설, 생산 효율뿐만 아니라 원면의 수율 등 여러 면에서 생산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것을, 정방기의 개량으로 코밍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코머사보다 컴팩트사의 품질이 좋다고 할 정도로 잔털이 거의 없어 실이 말끔하여, 선염사(先染絲)로 체크 무늬를 제직하면 발색성도 우수하고 무늬의 윤곽도 뚜렷하여 무늬가 선명하게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도 절감되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컴팩트 정방기가 업계에 보급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구체적인 종합 평가가 나와있지 않은 실정이다.

◎ 도코보 - 컴팩트사의 장점 구명하여 잘 활용

일본 내에서 방적 공장이 없으면서도 일찍이 컴팩트 정방기를 주목하고 있던 도코보는 2001년에 인도의 람코 그룹으로 하여금 이 새로운 정방기를 도입토록 하였으며, 현재 리터(Rieter) 컴팩트 정방기로 인도의 하이브리드 면(hybrid cotton)인 DCH 32 면과 수빈(Suvin) 면을 원료로 뽑은 “알티마”를 생산하고 있고, 쥐센(Süssen) 컴팩트 정방기로는 이집트 초장면을 원료로 하여 “e 알티마”를 생산하고 있다. 방적 번수는 7수 단사에서 120수 쌍사까지 폭넓게 뽑고 있다. 이들 컴팩트사는 데님, 수예사(手藝絲), 여성용 블라우스, 타월, 손수건, 원형 편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람코 그룹은 새로 쥐센 컴팩트 정방 교연 방기(精紡交撚紡機) “엘리트위스트” 2대를 도입하여 2005년 춘하절용으로 컴팩트사의 정방 교연 타입 “알티

마 Duo”도 개발하였다. 일부 업계에서는 컴팩트 정방 교연사가 보통 정방 교연사와 똑같다는 소문도 있는데, 도코보는 컴팩트 정방기의 성능을 다각도로 구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 새로운 정방 교연사의 품질을 구명해 보면, 기존의 컴팩트사보다도 잔털이 적어 광택이 좋고 실의 표면이 더욱 말끔하다. 링 방적 쌍사보다 강력이 높고 잔털수도 많이 적다. 정방 교연도 순면뿐만 아니라 합섬과의 교연도 시도하고 있다. 실 번수는 80수, 100수 쌍사급이 중심이며, 200수 쌍사급의 개발도 성공하였다. 이 정도의 세번수를 뽑기 위하여는 원면 선정이 매우 어려우며, 200수 쌍사급에서는 엄선된 수빈 면을 사용하고 있다.

도코보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폭 넓은 번수, 원면의 선정, 꼬임수 등의 품질을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생산 시설이 없으면서도 도코보는 방적의 기술력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일본 내는 물론 유럽에서도 도코보의 방적 경영 방식은 새로운 모델 케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